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6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설법의 시간 눈이 내린다. 시끄러웠던 세상이 고요해진다. 작은 눈송이 하나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가부좌를 튼다. 수 없는 법문이 무색해지는 시간. 설법의 시간이다. 사진은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한 대한민국전통문화사진공모전 대상작으로 충남 아산 외암마을 설경을 촬영한 장영섭 作 '눈 오는 날의 외암마을'이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문화부

인터넷 1인 방송

불교 폄훼, '正法 반크'로 넘자

〈민간 사이버 홍보대사〉

동영상 사이트 불교 폄훼 콘텐츠 대책은?

스님 빙자하며 선정적 행위
높은 조회수 노려 수익 창출
제재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
"불교 콘텐츠 바로잡기 필요"

스님을 빙자해 각종 과격한 언행에 선정적 행위까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1인 방송에서의 불교 · 승가 폄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는 이른바 '불교 반크(Vank, 민간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불교, 특히 스님을 폄훼하는 콘텐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영상채널인 유튜브에서 '스님'을 검색하면 '1000도 머리에 삼겹살 구워먹기' '교회 흉가체험' '스님의 번호따기' 등 과격하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전면을 장식한다.

대머리인 점을 활용해 BJ스O으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 방송 BJ의 경우에는 '머리에 코팩하기' '페라리로 여자꼬시기' 등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조회를 유도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일명 '헌팅'하는 비법을 소개하거나 이성과의 대화법을 알려주는 쥰O TV에서는 승복을 입고 헌팅하는 '스님이 번호 따기' 콘텐츠를 올렸으며, BJ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개땡O의 경우 채널 홈페이지에 이마에 '개땡O'를 쓴 스님 캐릭터를 명시하고 '성욕해제, 역대급 성드립' 등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스님과 불교를 폄훼하는 콘텐츠는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터넷 1인 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지만 콘텐츠 범위가 다양해 처벌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규제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의될지 조차 미정이다.

그나마 내려지는 제재 조치도 업계 자율규제 방침 하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9월 국회서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정요구가 제기된 1인 방송 콘텐츠는 2015년 216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220건의 시정요구 중 이용정지나 삭제 등 징계는 156건에 불과했다.

불교 콘텐츠를 연구하는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법으로 모든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확산에 기반해 1인 미디어가 발전했기에 규제로 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풍자와 해학, 그리고 폄훼, 명예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불교계 내 기준점도 아직 없는 상황이며, 그동안 방송 분야에서 호법 역할을 해온 보리방송모니터회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사실상 무방비"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폄훼하는 콘텐츠보다 불교의 좋은 면을 알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널리 알려가는 홍보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른바 '불교 반크 운동'이다.

독도 알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반크'(VANK)는 국내 대표 민간 사이버 홍보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에는 앞선 사례도 있다. 포교사단은 인터넷 포털이 활성화되던 2005년부터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불교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을 이양 받아 조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네이버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데 나선 바 있다. 당시 4대 포털사이트의 불교지식 5410건을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 갔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뉴미디어에서의 불교와 승가 폄훼를 막고, 불교를 알리는 일이 범불교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종단협 산하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측은 "2018년 각 산하단체 및 사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포교 관련 교육을 조직화하고,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계 미디어 콘텐츠 보급의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을 콘텐츠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청년 소셜벤처 무아의 전영우 대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기존 인기 콘텐츠와 불교 콘텐츠의 트렌드, 접점을 분석한 뒤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불교콘텐츠를 제작,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사찰 해맞이 템플스테이 A5 |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 산업' 국제학술대회 A6

평생 승가교육 헌신 '萬世師表' 종단 차원 포상 자리 마련한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19일 교육 공로자 포상식

종진 · 명성 스님 등 원로 10명
교육자 공로 포상은 종단 최초
취임 첫날 설정 스님 직접 지시

조계종이 평생을 승가교육에 매진한 원로 스님들에게 종단 차원 포상에 나선다. 교육 분야 원로 스님들에게 대대적 포상을 하는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4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는 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 교역자 스님 10명이 선정됐다.

비구 스님으로는 종진 스님(조계종 법계위원), 덕민 스님(경주 기림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혜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선정됐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명성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도혜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취임 첫날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설정 스님은 교육원에서 승가교육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공로자 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당시 설정 스님은 "종단의 3대 지표 중의 하나인 도제양성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한 스승들을 찬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일이 늦은 감이 많다"며 "종단의 근간을 세우고 지금 같은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종단이 있기까지 스승들의 노고가 너무 크다. 승가교육 공로에 대한 포상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로 교육 교역자 스님들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설정 스님은 포상식에 직접 참석해 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포상을 받는 스님에게는 설정 스님의 표창패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포상에 대해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포상자로 선정된 스님들은 '오래도록 전해질 스승의 표상(萬世師表)'인 분들"이라며 "향후 종단 승가교육 공로자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300년만에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재현된 에밀레종 (일명 신라대종, 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훼손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고증을 통해 완벽 복원

드이어 성종사 기술진이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향 분석을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 종소리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여음의 경우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오히려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Tel 02)733-6141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i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Tel 043)536-2581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대한민국 명장)

